광주 양과동 의료폐기장 행정소송 선고 1주일 앞

주민들 "대형 로펌과 싸워 이길지…"

"혹 패소하면 코앞 폐기장 가동 큰일"

광주시의 감사에 따라 위법사항이 지적돼 허가 취소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립에 대한 남구와 업체간 행정소송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대운동을 벌여온 주민들이 결과를 놓고 초조해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업체 측이 국내 굴지의 로펌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소송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가 패소할 경우 생활주변 인근에서 가동과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따른 새로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 남구와 의료폐기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는 26일 '의료폐기장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3차례의 공판에서 남구와 해당업체는 소송의 쟁점인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놓고 맞섰다.

남구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물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체 측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는 건축면적 1500㎡ 이하의 시설물은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1127㎡ 규모인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의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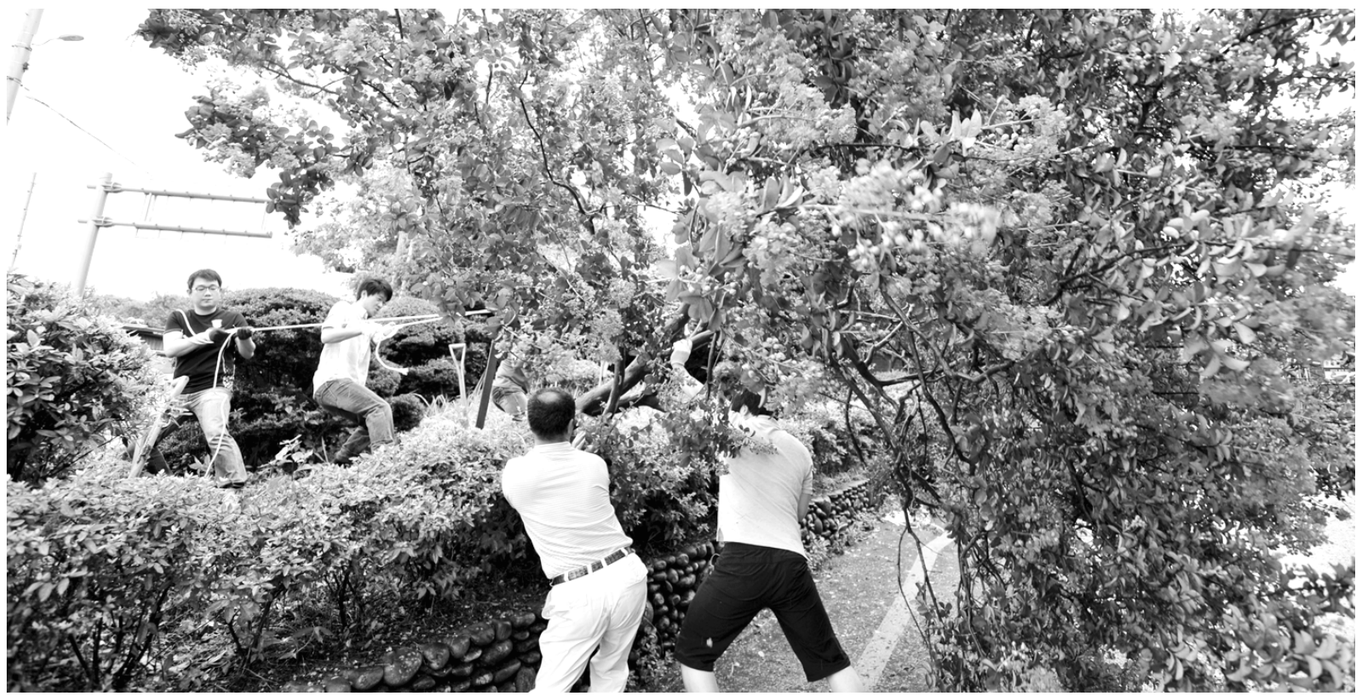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는 측은 지난 2008년 말께 꾸려진 주민대책위다. 대책위 40여명은 동네 코앞에 의료폐기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인동 대책위 총무는 "3차례의 공판을 지켜본 결과 법리상으로 대책위와 남구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대책위와 변호인단의 판단으로는 6대 4로 정도로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업체 측이 국내 굴지의 로펌에 소송을 맡긴 점이 걱정"이라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진행중인 남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기더라도 업체 측이 잘못된 공사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지금까지 모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최우선 목표는 승소이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업체가 1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않은 의견일 뿐더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태풍 피해 복구 안간힘 19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한 도로변에서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쓰러진 수령 20년 백일홍을 인근 학교 교직원과 주민들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 19일 오후 6시 현재 전남지역 태풍 피해액은 약 1억7500만원으로, 어선 9척이 반파되거나 유실됐고, 344.1ha에서 낙과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또 해남, 담양 등 전남 6개 시군 3500여가구가 정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 서울대 출신인데…"

보험사 지점장 사칭 수억대 사기 40대 덜미

24년간 동거녀까지 속여
졸업식에 가족과 사진도

고교 졸업 후 줄곧 서울대생 행세를 해왔던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이 24년 만에 들통났다. 이 40대 남성은 서울대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가족과 동거녀까지 감쪽같이 속였고 스킨스쿠버·골프·스키·색소폰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에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보험사 지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보험사 지점장을 사칭, 동호회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수익성 좋은 상품에 투자해주겠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인 박모(35)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14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를 졸업한 김씨는 가족에게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속이고 실제 1994년 졸업식에 참석해 학사모를 빌려 쓴 사진까지 찍었다. 최근에는 서울대 동창회가 만드는 인명록에 이름을 넣어 버젓이 행세해 왔다. 그는 3년 전 광주에 내려와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골프나 다이빙, 스키, 색소폰 동호회에서 회식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이 넘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100만원을 빌려 일주일 뒤 150만원으로 갚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경찰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김씨의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에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 대조까지 했으며, 1989년 서울대 입학생 중에 김씨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배기운 선거운동원 7명 집유·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9일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고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실제 많은 돈을 제공했다"며 "다만 협박에 의해 돈을 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의 선거운동원인 이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만들어 김씨 등에게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한 뒤 8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이씨가 약속한 만큼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선거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절도' 미스코리아 최윤영 경찰, 기소 의견 송치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씨의 절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41)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에 피해 사실을 안 김씨의 신고를 받은 뒤 도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은행의 CCTV 화면을 분석, 최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최씨는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장사 안돼" 시청 캐릭터에 방화

여수경찰, 30대 검거

여수경찰은 엑스포 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 현관에 설치된 엑스포 캐릭터 조형물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인 김모(34)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여수시 학동 여수시 1청사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엑스포 캐릭터 '여니'와 '수니' 가운데 여성을 상징하는 수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조형물 3분의 1 가량을 태워〈사진 오른쪽〉 1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시청 당직 공무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고, 곧바로 출동한 2대의 소방차가 완전 진화했다. 다행이 옆에 있던 '여니'는 신속한 진화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청사 내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김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형물에 붙은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여수시가 세운 '웅천엑스포 터미널'에 8000만원을 투자해 식당 2동을 세워 영업했으나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웅천엑스포 터미널 상인들과 상인연합회를 결성해 '여수시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9일부터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으며 불을 지른 19일 새벽까지 상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군대시절 가혹행위 전역 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안복열 판사는 군대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모욕 등)로 정모(24)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1~12월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신병이던 김모씨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미친 XX,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했다.

김씨는 전역 후 정씨를 고소했으며, 정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승합차 바다 추락 30대 운전자 숨져

19일 오전 8시5분께 고흥군 동일면 소영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추락, 운전자 정모(39)씨가 숨졌다. 빠른 물살 때문에 차량 수색에 어려움을 겪던 해경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피해차량을 찾아 인양했다.

경찰은 "차가 바다로 돌진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차에 사람이 더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근 해역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듣보잡' 피소 진중권, 변희재에 맞소송

쌍나팔

○…문화평론가 변희재(38)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진보 논객' 진중권(49)씨가 반격.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진씨는 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변씨가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진씨가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고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갈등을 겪었으며, 진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2125	1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 서로 33-2, 101동 6층 603호[동아-하이빌아파트] 59.9966㎡	아파트	81,000,000 8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1115	1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158-3 258㎡	대	16,013,100 16,013,1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진도군 지산면 내상당길 134 43.1㎡[실측사정:55.8㎡] 제시외 화장실 등 41.6㎡	단독주택		
2012타경 1962	2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587-1 74.88㎡ 제시외 창고 등 72.7㎡	단독주택	33,872,260 33,872,26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587-3 417㎡	대		
		동소 589-1 188㎡	대		
2012타경 2231	2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405-4 600㎡	대	64,808,510 64,808,51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일부타지상소재]포함
		동소 405-4 87.25㎡[농어가주택] 88.04㎡[창고] 제시외 창고 등 152.2㎡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1타경 5967	1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341-25 512㎡[박맹용지분512분의332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	3,652,000 3,652,0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있음
	2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341-27 820㎡	전	6,110,500 6,110,500	일괄매각.목록2,3 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분묘소재
		동소 341-31 291㎡	전		
2011타경 6601	1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681 1035㎡	답	10,350,000 10,3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440	1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산137-5 30980㎡[김윤철지분2분의1전부]	임야	44,921,000 44,921,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1085	1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974-2 6815㎡[현황:전,축사부지,일부임야및농로.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가축사및컨테이너소재]	임야	71,557,500 71,557,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2012타경 1115	2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659 797㎡[현황:일부유지]	답	20,700,500 20,700,500	일괄매각.목록3,8,9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산109 643㎡[현황:답]	임야		
		동소 산109-2 4034㎡[현황:답]	임야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2타경 1115	3	동소 661 737㎡[목록4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6,783,000 16,783,000	일괄매각.목록7현황:유지,임야,일부농로
		동소 산105-1 2999㎡[현황:답,전,일부임야.목록6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동소 산105-3 871㎡	임야		
	4	동소 880-2 1802㎡[현황:전]	답	11,352,600 11,352,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801	1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304 1679㎡	전	28,375,100 28,375,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제외
	2	동소 305 900㎡	전	15,300,000 15,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제외
2012타경 1917	1	해남군 송지면 학가리 산67 16532㎡	임야	10,249,840 10,249,840	분묘소재
2012타경 1962	1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587-1 181㎡	대	2,353,000 2,353,0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있음
2012타경 1993	1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154-1 4165㎡	임야	13,328,000 13,3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071	1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353 2598㎡	전	21,043,800 21,043,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156	2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005 932㎡	전	7,456,000 7,4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3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673-11 1082㎡	전	24,886,000 24,88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231	1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1042 557㎡	전	5,570,000 5,570,000	분묘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552	1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020 674㎡	전	6,335,600 6,335,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215 6645㎡	임야	28,573,500 28,573,500	분묘소재
[기타]					
2012타경 1436	1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358 1868㎡	목장용지	93,404,000 93,404,000	일괄매각.과수목일부포함하여매각[일부제외[동백나무,후박나무약50주]]
		동소 358 384.00㎡ 부속건물 퇴비사 197.40㎡ 제시외 창고 등 294㎡[제시외건물포함.퇴비사건물일부가인접토지[1110번지]에소재함]	축사		
2012타경 2156	1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723-1 650㎡	전	57,014,400 57,014,400	일괄매각.수목포함
		동소 724-2 648㎡	전		
		동소 724-2 제조업소[석재가공] 179.81㎡	제조업소		
		동소 724-4 725㎡	전		
		동소 724-5 212㎡	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8. 6.【월】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8. 13.【월】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